

‘보물선’ 그림에 태우고 날아간 ‘접힌 시공간’

November, 2019 | 손영옥 기자

작가의 방

ARTIST'S ROOM



enchanted

‘보물선’  
그림에 태우고 날아간  
‘접힌 시공간’

스즈로 주술사가 되어 자신의 현대미술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작가 양혜규를 만났다.

글 손영옥 사진 이규열 권영-김규모 촬영 황조-국제갤러리



전시실로 들어선 순간  
침침한 공간에 안개가 피어나고  
천장에서 늘어뜨린 구체는  
'말랑말랑' 소리를 내며  
태고의 기억을 건드린다.

“귀국할 때마다 중·고교, 대학교 때 한 작품 다 내다 버렸어요. 남은 게 없어요. 썩 다 정리했거든요. 주인 없는 물건은 남한테 짐이니까요. 근데 이전 용케 남아 있더라고요.”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하는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전시 현수막엔 ‘용케 살아남은’ 그 그림이 걸렸다. 두 남동생과 신이 나서 크레파스로, 수채화 물감으로 그렸을 그림에 관해 설명하는 양혜규 작가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잠물결 졌다. 사뭇 진지해서, 그래서 까칠하다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 그다. 40년도 더 전, 꼬맹이 때 그린 추억의 ‘보물선’ 그림을 가지고 인터뷰를 시작한 게 마법을 부린 걸까. 걸기에 차 있기 일췌이던 목소리는 이날따라 소프트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웠다. ‘내가 아는 양혜규 작가가 맞나?’ 실을 정도였다. 우리 모두를 유년의 추억 속으로 소환하는 저 그림, 양끝이 휘어진 바이킹 배, 노를 젓는 도깨비, 바다 위를 나는 시조새 등을 그리던 꼬마 양혜규는 훗날 자신이 작가가 돼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어른이 된 그는 지금 ‘그냥 화가’도 아니다. 카셀 도쿠멘타(2012), 샤르자 비엔날레(2015), 파리 퐁피두센터(2016), 베를린 킨들 현대미술센터(2017), 뉴욕 MoMA(2019) 등 해외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로부터 끊임없이 전시 초청이나 작품 의뢰를 받는 ‘글로벌 스타’ 작가다.

**손영옥**

국민일보 미술·문화재 전문 기자 겸 논설위원이다. 저서로 <아무래도 그림을 사야겠습니다>(2018) <한 폭의 한국사>(2012) <조선의 그림 수집가들>(2010) 등이 있다. 서울대에서 미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학과 미술관 등에서 강의도 한다. 박사 학위 논문 ‘한국 근대 미술시장 형성사 연구’(2015)를 대중 눈높이에 맞춘 단행본 <미술시장의 탄생>(가제) 출간을 앞두고 있다.



**ENCHANTRESS**

KORAIL  
www.korail.com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Haegye Yang:  
When The Year 2000 Comes**



September 3 - November 17, 2019

**KUKJE GALLERY**

<양혜규: 서기 2000년이 오면> 설치미술가 양혜규가 국내에서 4년 만에 여는 개인전이다. 가수 민태경이 1982년에 발표한 노래 '서기 2000년'이 불러 퍼지는 가운데 갖은 사물을 그린 '백지와 함께'를 비롯해 '침침한 공간' '소리 나는 운물' '술 코릿 통차' 등의 작품을 전시한다. 서울 국제갤러리 3관(K3)에서 11월 17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2-735-8449

**얼굴 삼매 그린 보물선이 깎아 놓은 복선**

2015년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연 개인전 이후 4년 만의 한국 전시는 외계 건물을 연상시키는 국제갤러리 3관(K3)에서 열렸다. 가을 초입, 작가를 만나기 위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탄성부터 나왔다. 침침한 공간에 안개가 피어나고, 무빙 라이트가 사방 벽 위의 이미지를 탐조등처럼 훑고, 소행성처럼 보이는 체력 단련용 짐볼이 바닥에 떨어진다. 짐볼에서는 향기가 나오는 데, 이쯤하여 '대지의 향'이다. 천장에서 늘어뜨린 구체(球體)는 작은 방울로 구성이 돼 움직이면 '말랑말랑' 소리가 나 태고의 기억을 건드린다. 이따금 새소리도 들리는 전시장 한가운데는 '블라인드 인간' 같은 순백 구조물 두 점도 있다. SF 영화 속으로 훌쩍 날아온 듯한 미래적 분위기다.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 그러면서 시각적 스펙터클이 있다. '원시적 요소와 미래적 요소가 공존하는 세계를 창조한 것 같다. 어릴 때는 크레파스로 그 세계를 칠했다면, 설치미술가가 된 지금은 조



“해답이 똑 떨어지는  
작업은 싫습니다.  
작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사람일 뿐,  
해석은 관객의 몫이죠”

각과 설치 작품으로 역시 신이 나서 상상의 세계를 구축한 것 같다”라고 했더니 “부인할 여지가 없네요”라며 그가 맞장구쳤다. 그만큼 신념이 배어 있다. 하지만 양혜규가 누군가, 치밀함과 연구가 베풀어진 설치미술 작가다. 리움 전시 이후 달라진 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 변화보다는 축적이란 말을 선호해요. 변형, 변주, 발전, 전개... 이런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작기도 일종의 연구자거든요.” 피나는 숙련으로 예술가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험을 하고 전시를 다시 찬찬히 봐야 한다. 곳곳에 복선과 알레고리가 숨어 있었다.

**민혜경 노래 '서기 2000년'을 틀어놓은 이유**  
공사 중인 골목을 끼고 전시장인 K3로 향하는 순간, 단테 없이 한물간 노래가 들렸다. 수풀 속에 부착된 센서가 사

람을 감지하고 흘러보내는 노래는 가수 민혜경이 1982년에 부른 '서기 2000년'이다. “서기 2000년이 오면/ 우주로 향하는 시간/ 우리는 로켓 타고/ 멀리 저 별들 사이로 날으리/ 그때는 전쟁도 없고/ 끝없이 즐거운 세상...” 민혜경이 ‘미래’라고 특정한 18년 뒤의 2000년을, 다시 그 기간만큼 훌쩍 뛰어넘은 2019년에 듣는 그 노래. “짜바, 짜바, 짜바” 리듬도 ‘울드’해졌지만, 가사가 유치하게 들린다. “2000년에 대한 상상력이 지금 보면 황당함에 가까울 정도로 낙관적이지 않나요? 근데 1982년의 상상력은 저였을 것 같아요. 88서울올림픽과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고, 표현의 자유가 없었던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요. 하루 하루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을 텐데, 그래서 순진하다 못해 황당한 노래가 굉장히 행법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유행가 가사 안에서 ‘집안 시공간’을 봤어요. 시간이 걸리면 서사

(이야기)도 접히거든요. 저 보물선 그림과 민혜경의 노래를 연결 지으면 재미있는 연상 작용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혜규는 긴 검은 머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나왔다. 개막식에는 붉은색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나타나 화제가 됐다고 했다. 누구라도 주술사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인상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 주술사가 되어 자신의 현대미술 세계로 우리를 초청했다.

**벽지 작업을 만들어 내는 소우주**  
사랑 벽면을 감싸는 벽지 작업(월페이퍼)은 이미 전시에서 관람 경험을 증폭시키는 최대 공헌자다. 벽지엔 양파와 마늘, 붉은 고추, 무지개와 벵게, 쥘, 방울, 원단 의료 수술 로봇 등이 프린트돼 있다. 이미지들은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아(Occitania) 지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토속적·민속적 문화, 서구로 치면 이교도적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라고 했다. 토속적 전승 문화의 흔적과 하이테크 산업을 상징하는 로봇 수술 기계를 병치시킨 의도는 무엇일까. 생태주의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시대, 이번 전시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읽어 볼 수 있다. 양혜규는 “(해답이) 똑 떨어지는 작업은 싫다. 작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사람일 뿐,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며 통했다. 벽지뿐 아니라 다양한 설치 작품을 통해서도 ‘민속과 미래의 공존’이라는 주제는 반복해서 제시된다. 천장에서 늘어뜨린 소형성 같은 구체에는 인조 짚이 썩어져 있는 식이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새소리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 이관문점 ‘도보다리’에서 가진 회담의 중계 영상 중 일부다. 그는 “정상 회담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 사는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는 모습에 압도됐다. 그때가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뛰어넘는 차원에 존재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시공간은 또 그렇게 접힌다.



ENCHANTRESS

‘솔 르윗 동차동차’, 작가의 분신을 보는 듯

전시장 중앙에 있는 ‘솔 르윗 동차동차’(2018) 연작 두 점의 자태는 입도적이다. 블라인드로 큐브를 엮갈리게 쌓아 올리듯 만든 구조물에 손잡이와 바퀴를 단 이 작품에선 직립한 인간이 연상된다. 빨래 건조대 등 공산품을 사용해 작업하기에 ‘레디메이드(기성품) 작가’로 통하는 그는 2000년대 중반부터 블라인드를 재료로 쓰기 시작했다. 2015년 리움 전시부터 솔 르윗의 입방체 모듈 작품을 블라인드로 만들어 천장에 매달고는 ‘솔 르윗 뒤집기’(2015~)라고 명명했다. 이번 연작은 그것과 ‘의상 동차’(2011~) 연작을 ‘합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의상 동차는 옷을 입듯이 사람이 조각 내부에 들어가 조각 자체를 움직이게 되어 있다. ‘솔 르윗 동차동차’는 반대로 조각 외부에서 두 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이상적이다. 양혜규는 왜 미국의 미니멀리즘 대표 작가인 솔 르윗(1928~2007)에 집착할까.

“미술이 제 생업입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은 우리 전통이 아니었어요. 비서구에서 온 미술가로서 서양미술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충돌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어요. 일종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솔 르윗과 그가 속한 미니멀리즘은 그런 고민에 승통을 토했어요.”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간 그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을 불면의 시간이 상상됐다.

서구 역사라는 서사와 서구 미술사라는 해석은 일대일로 대응하며 연결된다. 미니멀리즘은 그 도도한 상징과 대응의 사슬을 끊어 낸 미술 사조였다. “마침내 비서구인으로서 ‘도경(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다른 비행체에 접근해 결합하는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얻은 것이 솔 르윗이었다”라는 말에 손뼉을 쳐 주고 싶어졌다.

그에게도 추운 무명 시절이 있었으니까. 팔리지 않은 작품은 짐이 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무대로 뛰던 30대 중반의 그에게는 더욱 그랬다. 팔지 못한 작품 열세 점을 운송업체에서 포장한 그대로 묶어 ‘신작’이라고 베를린의 아트 페어에 내놨다. ‘창고 피스’(2004)는 독일의 한 소장가가 구입했다. ‘창고 피스’와 ‘솔 르윗’ 연작 사이의 지난한 연구 기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양혜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현재 모교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립 미술학교 슈테델 숄레(Städelschule)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그만의 시공간을 여행하고 있다. ■

● ‘솔 르윗 동차동차’ 연작은 블라인드로 큐브를 엮갈리게 쌓아 올린 구조물에 손잡이와 바퀴를 단 작품이다.



INFORMATION

양혜규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대표로 단독 전시를 했다. 카셀 도쿠멘타(2012), 사르자 비엔날레(2015), 시드니 비엔날레(2018), 이스탄불 비엔날레(2019) 등으로 이어지는 전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중이다.